

보도일시 (인터넷) 2023. 12. 6.(수) 06:00,
(지면) 2023. 12. 6.(수) 석간

배포 2023. 12. 5.(화) 14:00

울산 신행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 지정

- 약 9,600억 원의 민간투자,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, 연간 210만 톤 물동량 창출 기대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12월 6일(수) ‘울산 신행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’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는 항만별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업을 집적화하고 특성화하기 위해 「항만법」 및 「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「1종 항만 배후단지관리지침」을 개정하여 지난 2020년 특화구역 지정 제도를 도입하였으며, 현재까지 콜드체인 특화구역(인천 신행, 2020. 6.), 전자상거래 특화구역(인천 남항, 2020. 8.) 등 2곳이 지정되어 있다.

지난 11월 28일 울산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및 관리기관은 해양수산부와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울산항 특성에 따라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.

이에, 해양수산부는 연간 유류화물 처리량이 세계 3위 수준(1억 5,315만 톤, 2020년 기준)인 울산항의 특성을 고려하여, 입주기업에 안정적인 친환경에너지 관련 사업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‘울산 신행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’을 24만㎡ 규모로 지정하였다.

특화구역 지정으로 울산 신행 배후단지 내 일부 구역을 기존의 에너지허브(LNG+오일) 1단계 항만 터미널 사업과 연계함으로써 친환경 에너지 관련 대규모 투자 유치 기반이 확대되고, 울산항에 약 9,600억 원의 민간투자자와 400여 명의 신규 일자리, 연간 약 210만 톤 규모의 신규 물동량이 창출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.

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“국제해사기구(IMO)의 ‘2050 탄소중립’ 목표 채택, 친환경 선박 전환 가속화 등 물류 환경변화 속에 친환경 에너지 선도 거점을 육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”라며, “이번 특화구역 지정을 계기로, 울산항이 항만과 배후단지, 입주기업 상호 간 동반상승(시너지) 효과를 극대화해 나가길 기대한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해운물류국 항만물류기획과	책임자	과 장	오영록 (044-200-5750)
		담당자	사무관	박지훈 (044-200-5755)

□ 특화구역 개요

- (명칭) 울산 신항배후단지 친환경에너지 특화구역
- (위치/면적) 울산 신항배후단지(1단계 일원) / 241,244.7m²
- (관리기관) 울산항만공사

< 위치도 >

